



## 사물(작품)의 이미지 읽는 법

이것은 일부 특수한 사물이나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물(혹은 유물이나 미술작품)을 전문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읽기를 시도한 것이다.



1) 중앙에 있는 사물(object) 혹은 예술작품을 독자(관객)이 처음에 만나는 것은 흥미성이다.

2) 이 흥미(관심)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 구체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3) 이 때 형태나 색 등을 보고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에 유용성이나 용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자기 중심에서 바라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을 관찰하고 바라볼 때, 여기까지만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물이나 대상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4)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기술과 제작법 더 나아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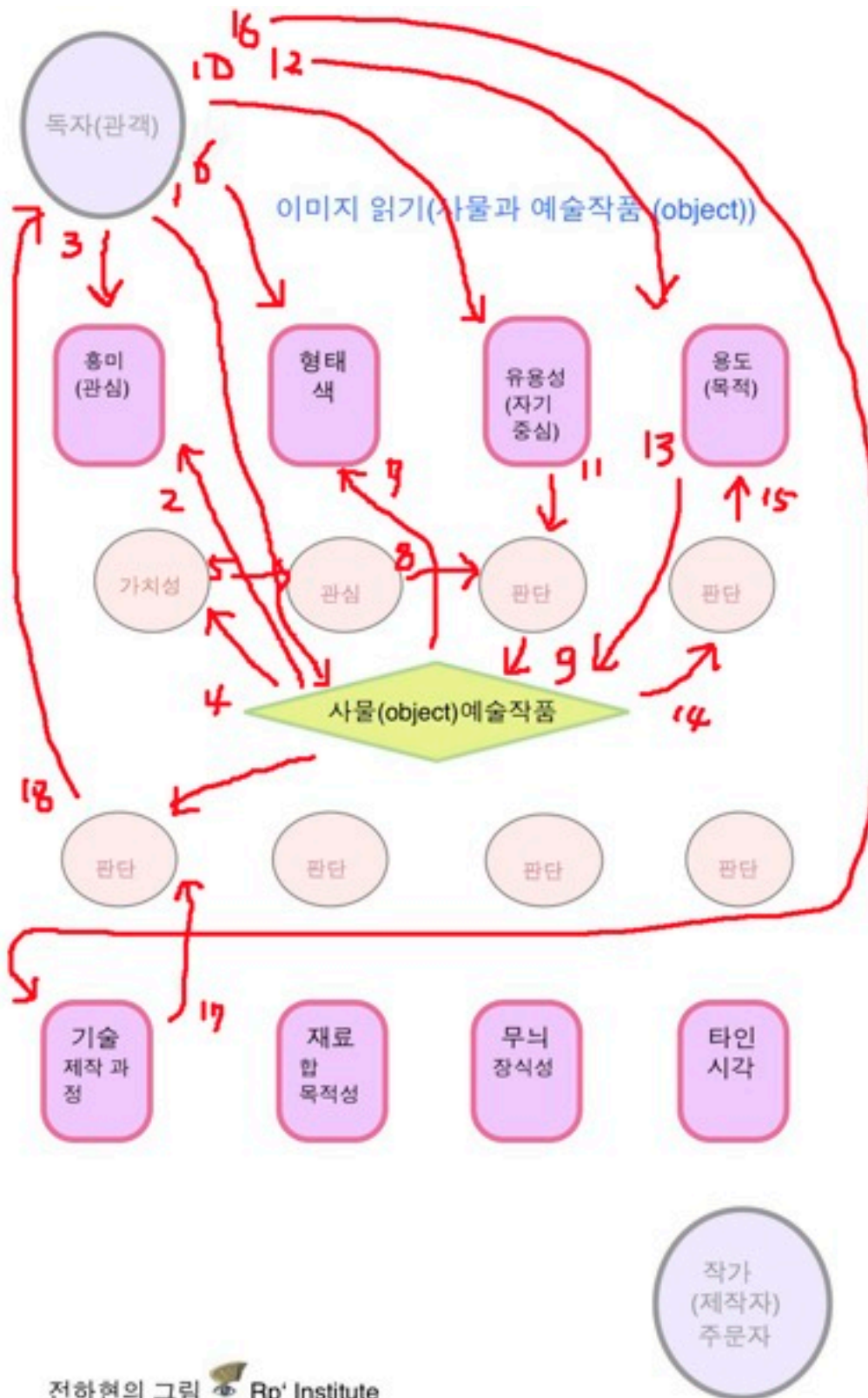
5)재료와 그것의 유용성인 합목적성,

6)세부적으로 무늬 장식성 등 여러 분야에서 바라본 후,

7)자신의 시각이 아닌 타자

의 시각, 다른 관중,

- 8) 마지막으로 작가의 시각과 그것을 사용하고 주문한 사람들의 시각을 찾아내고
- 9) 자기의 시각과 비교한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의 사물(작품) 앞에서 수 많은 복합적인 판단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복잡한 과정은 몇 분이내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와 일반적 방법이다.



- 중요한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물과 교감(초록색의 반사선)을 하면서
- 1)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수 십번의 과정을 통해서
  - 2) 사고과정이 발달하고 사물과의 교감능력이 생성되고
  - 3) 이미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형성된다.
  - 4)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입장과 견해를 읽어내고 그 바탕으로
  - 5) 자신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찾을 수 있는 동시에
  - 6)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형성된다.

